

# 베르그송의 자유에 대하여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시론』을 중심으로—

엄태연

(서울대 경제학부)

## 1. 들어가며

베르그송의 첫 번째 주저인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시론』(이하 『시론』)은 우리의 의식에 직접 주어지는 의식 상태들을 탐구함으로써 우리가 왜곡해버리는 실재의 모습을 복원하고자 하는 시도를 담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에 주어진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매개를 통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 속에서 주어진 것의 직접성은 사라지고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표상만이 남는다. 이 표상 체계는 우리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적용되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현실에 비해 너무나도 크게 재단되었다. 베르그송이 철학에 있어서 가장 결핍되어 왔던 것이 정확성이라는 지적을 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sup>1)</sup>

『시론』의 서문에서 베르그송은 철학적 문제들이 일으키는 몇몇 난관들이 실재를 언어적, 공간적으로 부당하게 번역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sup>2)</sup> 특히 우리 자신의 행위의 경우, 우리 자신이 행위하는 배우인 동시에 그 행위를 관찰하는 관객이라는 사실은 공간적 표상이 보다 쉽게 개입되도록 만든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행위를 관찰하는 관객의 입장에서 행위를 평가하며, 이 때문에 자유론과 결정론 사이의 해결 방안 없는 논쟁이 시작된다. 그러나 베르그송의 철학은 관

1) 앙리 베르그송(이광래 역), 『사유와 운동』, 종로서적, 1981, p.5.

2) 앙리 베르그송(최화 역),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시론』, 아카넷, 2001, pp.15-16.

객의 관점이 아니라 배우의 관점에 놓여 있다.<sup>3)</sup> 우리 자신의 행위를 공간을 통해 왜곡된 방식으로 파악하는 대신 우리 의식에 직접 드러나는 대로 파악한다면, 자유론과 결정론의 대립이 해소되어야 할 허위 문제임이 드러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시론』의 논의를 중심으로 베르그송의 자유론을 검토할 것이다. 우선, 2장에서 우리는 의식에 직접 주어진 심리 사실들의 강도와 지속 개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 강도와 동질적 시간이라는 개념이 시간과 공간의 혼동으로부터 나타난 것이며, 공간과 혼동되지 않은 진정한 시간은 지속임이 드러날 것이다. 3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베르그송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검토할 것이다. 베르그송은 이전에 행해진 자유에 대한 논의들 역시 시간과 공간을 혼동하는 데서 성립함을 주장하며, 이를 드러냄으로써 자유의 문제를 해소시킨다. 4장에서는 베르그송에 대한 들뢰즈의 해석을 바탕으로 베르그송의 자유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베르그송의 자유는 하나의 당연한 사실인 동시에 노력해서 달성해야 할 것으로 그려진다. 우리는 들뢰즈의 잠재성과 분화라는 개념을 통해 자유에 대한 이 두 견해를 화해시키고자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베르그송이 말하는 자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한편, 자유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의 내적인 의식 상태에만 한정되었던 『시론』의 탐구가 어떻게 지속의 존재론으로 확장하고 있는지를 추적해 볼 것이다.

## 2. 강도와 지속

칸트는 인간의 감성 형식이 내적 상태에 대한 직관 형식인 시간과 외적 감각에 대한 직관 형식인 공간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규명하고, 두 직관 형식을 각각 계기와 연장성으로 특징짓고 있다. 그런데 내적 직관인 시간은 아무런 형태도 주지 않기 때문에 칸트는 시간 계기를

3) Jankélévitch, Vladimir, *Henri Bergson*, PUF: Paris, 1959, p.29.

표상하기 위해 시간을 무한히 뺏어나가는 선에 비유한다.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성질들을 선의 성질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단지 시간의 계기를 선의 동시성으로 치환하는 것뿐이다.<sup>4)</sup>

베르그송의 물음은 여기서 시작된다. 동시성을 통해 계기를 온전히 표상할 수 있는가? 시간이 공간적인 선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 『시론』에서 베르그송은 우리의 내적인 의식 상태들의 직접적인 경험을 탐구함으로써 이 두 개념 사이의 혼동을 드러내고 있다.

## 2.1. 강도

우리는 기쁨, 슬픔, 욕망과 같은 우리의 내적인 의식 상태들이 연장적인 외부 사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각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의식 상태들의 강도에는 더 기쁘다거나 덜 슬프다와 같은 양적 비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강도적인(intensive) 크기의 관념이다. 우리는 이런 의식 상태들이 비록 연장적인(extensive) 사물들처럼 측정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 상태들 사이의 크고 작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다른 것보다 크다, 혹은 작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을 통해 포함하는 것과 포함되는 것의 관계를 표현한다. 보다 큰 자연수는 보다 작은 자연수를, 보다 큰 물체는 보다 작은 물체를 자신 안에 포함하며, 우리는 여기서 그것이 선이건 넓이건 간에 더 작은 공간을 포함하는 더 큰 공간을 상상한다. 그러나 의식의 영역에서 심리상태의 강도들은 서로 포개질 수 없다. 임의의 수가 그 수에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수를 자신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포개지는 공간의 표상’을 통해 수의 증가하는 계열이 표현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의식 상태의 강도들, 예컨대 기쁨의 계열에서 우리는 그 계열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어

4) 임마누엘 칸트(백종현 역), 『순수이성비판1』, 아카넷, 2006, p.254.

떠한 내적 징표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질적인 의식 상태에서부터 어떻게 양적 정도의 관념이 나오는지, 우리는 왜 어떤 공간도 차지하지 않는 내면적 사실들로부터 더 크거나 작은 크기, 즉 공간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베르그송은 어떠한 외연적 요소의 개입도 없는 우리 내면의 깊은 의식 상태를 살펴봄으로써 순수한 강도의 변화는 크기의 변화라기보다는 질의 변화라는 것을 발견한다.<sup>5)</sup> 가령 우리가 증가하는 욕망의 강도를 인지하게 되는 것은 우리 내면의 어떤 심리 상태의 증가하는 크기를 지각했기 때문이 아니다. 깊은 의식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심리적 사실, 가령 욕망을 더 이상 따로 떼어내 상호 외재적인 사물들처럼 취급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가 깊은 욕망이 형성되었음을 지각할 수 있는 이유는 사태 전체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변해버리고 더 이상 동일한 대상이 동일한 인상을 주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sup>6)</sup> 외부 요소들이 개입하지 않는 자기 충족적 의식 상태들의 영역에서, 공존하는 심리적 사실들은 서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혼용된 덩어리로 존재한다. 우리가 보는 더 높은 강도의 욕망은 이러한 혼용된 덩어리 속에서 따로 떼어내진 특정한 색조의 변화이며, 우리가 동일한 이름으로 부르고 동일한 방식으로 표상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강도의 욕망과 양적으로 비교되지 않았을 질적 차이이다.

이처럼 의식의 깊은 영역들에서 의식 상태들의 변화는 언어적으로 동일하게 표상될 수 없는 전체적인 질적 변화를 의미하며, 동일한 상태로 묶을 수조차 없기에 크기에 대해 논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 상태들 중 외부 원인과 전혀 연계되어 있지 않은 순수 강도적인 사태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의 강도적 사태들은 신체적 징후를 수반한다. 신체적 징후를 수반하는 강도들에 대한 탐구는 순수 강도적인 사태에서는 온전한 질적 변화로 나타났던 강도의 개념이 어떻게 크기의 개념을 불러일으키는지를 보여준다.

외부 대상과 연계되어 있는 강도적 사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베

5) 앙리 베르그송(최화 역),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시론』, 아카넷, 2001, p.27.

6) Ibid, p.26.

르그송은 우리가 의식 상태에서 일어나는 질적 변화와 외부 대상의 연장성으로부터 지각되는 양적 변화를 이중적으로 지각하고, 혼동하기 때문에 강도의 개념에 크기를 도입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근육 운동의 경우, 우리는 주먹을 점점 더 세게 쥐면서 주먹에 가해진 힘의 강도가 점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먹이 느끼는 것은 동일한 힘의 크기이며,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어느 순간 피로로, 고통으로 질적으로 변화할 뿐이다. 반면 주먹을 점점 더 세게 쥐수록 처음에는 주먹에만 관여하던 감각이 이제는 팔에도, 어깨에도 관여하게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양의 변화이다. 그러나 다른 신체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근육의 수축은 주먹에서 지각된 것과 동일한 힘의 감각이 아니며, 우리가 그 변화들의 확산을 주먹이라는 한 점에 국한시키지 않는 한 주먹에 가해진 힘의 점증하는 강도를 생각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먹이 겪는 질적인 변화와 근육 운동에 관여하는 신체 부위들의 양적 팽창의 감각을 이중적으로 지각함으로써 주먹에 가해진 근육 운동의 강도라는 개념에 도달한다.

강도적인 의식 상태와 연장적인 크기의 이중적 지각은 의식 상태와 그와 관련된 외부 대상을 뒤섞어버림으로써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강도라는 혼동된 개념을 낳는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여전히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공간뿐이다. 연장적인 외부 요소의 개입이 없는 깊은 의식 속에서 순수 강도적인 변화가 드러내는 것은 상호 침투하는 의식 상태들의 전체적인 색조 변화이다. 이것은 크기를 비교할 수 있기는커녕 동일한 언어를 통해 변하지 않는 심리적 사실로 고립시키는 것도 불가능한 질적 변화이다. 베르그송은 순수한 강도를 연장성과 대립시키는 이상의 탐구를 바탕으로 의식 상태들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내적 다양성을 공간적인 수적 다양성과 구별한다. 그럼으로써 의식 상태의 흐름을 나타내는 내적 다양성으로서의 시간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난다.

## 2.2. 지속

우리는 의식적 사실들의 영역에서 강도적인 것과 연장적인 것을 혼동하듯이, 의식 상태의 다수성과 수적 다수성을 혼동한다. 수적 다수성의 경우, 우리는 어떤 사물들을 세기 위해서 그 사물들로부터 독특한 질을 추상해 그 사물들을 모두 공통적인 것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그런데 공통된 사물들을 세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하나의 동일한 사물로 합치지 않고 따로따로 구별해야 하므로 우리는 공간 속의 서로 다른 위치에 그것들을 병치시킨다. 그렇게 형성된 수적 다수성의 관념은 수가 하나의 동질적인 단일성(unité)을 형성하는 동시에 잠정적으로 여러 단위(unité)들로 나뉠 수 있음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수적 다수성의 관념을 연장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수 개념이 공간의 부분들이며 공간이란 정신이 수를 구성하는 질료<sup>7)</sup>라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우리가 사물들을 공간 속에 병치시킴으로써가 아니라 시간의 각 순간들에 위치시킴으로써 지속하는 시간의 잇따르는 계기 속에서 켜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 우리가 상상하는 시간은 앞서 칸트가 생각했던 것처럼 무한히 뻗어나가는 공간적인 선으로 표상된 시간이며, 흐르는 것이라기보다는 동시적으로 파악되는 일종의 공간이다. 동질적이고 서로 구별되는 동시적 항들은 명백히 공간의 개념을 구성하며,<sup>8)</sup> 따라서 시간을 의식의 상태들이 전개되는 무한정하고 동질적인 장소로 제시하는 것은 시간을 지속으로부터 빼내어 한 순간에 주어지는 것으로 공간 속에 표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베르그송은 동질적 장소라는 형태로 생각된 시간을 순수 의식의 영역에 공간의 개념이 침입한 데 기인한 사생아적 개념이라고 비판한다.<sup>9)</sup>

우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그 종소

---

7) Ibid, p.109.

8) Ibid, p.124.

9) Ibid, pp.128-129.

리를 세기 위해 그 각각의 울림들이 갖는 질을 제거하고 이념적 공간 위에 그것을 나열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러한 질의 제거 없이 우리의 의식 상태 속에서 감각되는 각각의 종소리는 앞선 종소리에 더해 계속해서 변화하는 새로운 질의 인상을 준다. 우리가 듣는 어떤 멜로디의 한 음의 길이가 길어졌을 때 우리에게 지각되는 것은 그 길이가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변하는 선율 전체의 질적인 차이라는 점은 공간 개념의 개입이 배제된 의식 상태들의 흐름, 순수한 시간이 상호 침투하며 스며드는 질적 다양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순수한 지속은 분명, 명확한 윤곽도 없고, 서로의 밖에 있으면서 어떠한 경향도 없으며, 수와는 어떠한 유사성도 없이 서로에 녹아들고 서로 침투하는 질적 변화의 연속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아마도] 순수한 이질성일 것이다.<sup>10)</sup>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질적 다양성으로서의 시간을 동질적 다수성으로서의 공간과 혼동해 동질적 시간의 개념을 형성한다. 강도와 연장성 사이의 혼동이 외부 대상과 관계하는 의식의 표면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듯이, 시간과 공간 사이의 혼동이 이루어지는 방식 역시 시간과 공간이 교차하는 운동의 영역에서 잘 드러난다.

A점에서 B점까지의 운동을 생각해보자. 그 때 우리는 운동체가 A점과 B점 사이의 무수한 점들을 통과해 가며, 그 점들은 운동이 이루어지는 시간의 각 순간에 대응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운동이 지나간 궤적이며, 그 공간적인 궤적에 대응하는 공간화 된 동질적 시간일 뿐이다. 운동과 함께 생겨나는 공간적인 궤적을 배제한 채 운동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남기는 인상을 떠올려보면, 우리는 그것이 분할할 수 없는 하나의 독특한 도약임을 깨닫게 된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운동의 진행이 갖는 독특한 질적 감각과 그 운동의 진행이 남기는 사물로서의 궤적을 이중적으로 지각하며, 그 둘을 혼동해 동질적이고 무한히 나누어지는 운동의 개념을 낳는 것일 뿐이다.

10) Ibid, p.135.

시간과 공간의 이러한 혼동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 실재를 상징으로 대체시키고 있다는 데에 기인한다. 질적 변화로서의 진정한 시간은 계속된 변화 그 자체로서 언어로서 고정시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질을 삭제하고, 운동성을 고정시키며, 명확한 윤곽을 지닌 동질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다시 말해 그것을 공간화시킨다. 우리의 의식 상태 내부의 끊임없는 질적인 변화는 그 변화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해질 때만 다른 이름으로 표현된다. 시간 속에서의 우리 의식 상태의 진행은 언어로 응고된 사물처럼 다루어지며,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죽은 상태들의 병치로 대체해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대면한다.<sup>11)</sup> 그러나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진행이며, 구체적인 질이 탈색되지 않은 끊임없는 질적 흐름, 곧 지속이다.

### 3. 자유의 문제

우리의 의식 상태들을 탐구함으로써 베르그송은 내적 강도와 외적 외연 사이의 혼동, 시간과 공간의 혼동을 드러내었다. 이와 같은 혼동은 공간 위에 적절히 표상될 수 없는 우리의 의식 상태를 언어를 통해 공간 속의 사물들처럼 다룸으로써 여러 철학적 문제들에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을 남긴다. 베르그송은 그와 같은 철학적 문제의 하나로 자유의 문제를 언급한다. 그리고 공간적 표상과 혼동되지 않는 실재적 자아에 대한 언급을 통해 자유의 문제를 해소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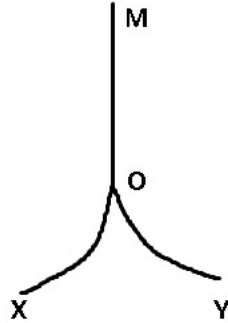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베르그송이 다루는 자유에 대한 세 가지 논변의 검토에 집중하고자 한다. 자유의 문제로부터 공간적 표상을 제거하기 위한 베르그송의 이 논변들은 각기 베르그송이 생각하는 자유의 특정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세 논변들을 나누어 고찰함으로써 우리는 베르그송의 자유 개념에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11) Ibid, p.169.



## 3.1. 갈림길의 표상과 구체적 자아

우리가 자유롭다고 말할 때, 우리는 가능한 두 행동 X와 Y 사이에서 망설이는 자아를 떠올린다. 결국 우리가 X를 선택하더라도 선택의 순간 우리에게 Y도 가능한 행동으로 주어져 있었으며, 따라서 선택의 순간 우리는 X를 행하도록 결정지어져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가 자유롭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정론자들은 여기서 이미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X를 행하도록 결정되어 있었으며, Y도 가능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X를 선택한 조건들 중에 하나를 제쳐놓은 채로 착각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자유의지의 옹호자인 결정론자이건 간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의식상태의 흐름 MO가 점 O에서 X와 Y의 방향으로 갈라져 있는 갈림길의 기하학적 도형을 상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MO를 거쳐 X로 갔다는 바로 그 사실에 의해 X로의 길이 그려지는 것이지, 길이 우리의 행위 이전에 미리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공간 위에 그려진 기하학적 도형은 자아의 운동 자체가 아니라 자아가 행한 운동의 궤적이며, 따라서 이러한 기하학적 도형은 이미 이루어진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루어지고 있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sup>12)</sup> 자아의 활동을 이와 같은 기하학적 도형으로 대체함으로써 우리는 지속하는 의식의 흐름을 공간성 위에 옮겨놓고 그것을 부동의 사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자아의 활동을 옹고시켜 결정된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유의지의 옹호자들은 자아의 망설임, 선택, 무차별적 활동성<sup>13)</sup>을 점 O에 부여함으로써 우리의 자유로운 활동을 복원시키고자 한다.

12) Ibid, p.226.

13) Ibid, p.223.

우리가 행위의 자발성을 논할 때 보통 그 행위에 다른 어떤 영향이 가해지지 않았는가를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떤 것도 미리 선택하지 않았고 단지 선택하려 망설이고 있을 뿐인 무차별한 활동성이 우리가 자유의지에 대해 갖는 관념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의식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질적 흐름을 탈색해 행위의 내용이 없는 활동성 일반을 남겨둔 자유 의식은 구체적인 질이 삭제되고 흐름 일반만이 남은 동질적 시간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사생아적 개념이다. 공간화 된 동질적 시간이 실제로 흐르지 않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이해된 자유의지도 결코 활동하지 않는다. 무차별한 활동성을 가진 자유의지는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만 타당한 개념이다. 활동을 위해서 우리는 X나 Y 둘 중 하나의 방향을 선택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활동성 자체는 이미 방향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우리가 ‘점 O에 위치시켜야 할 것은 것은 무차별적 활동성이 아니라, 외관상의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OX의 방향으로 미리 향한 활동성이다.’<sup>14)</sup>

결정론자가 점 O에서 발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X로의 경향성이며, 바로 이런 이유로 결정론자는 우리가 선택의 순간 이미 X를 향하도록 결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만일 우리 자신의 의식이 위에 제시된 기하학적 도형이었다면 결정론자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의 행동이 공간 위의 도형으로 옮겨진다는 바로 그 사실에 의해서 우리의 행위는 흐르는 시간 속에서 빠져나와야만 했고, 흘러간 시간 속에서 결정된 것이 되어야만 했다. 자유의지의 옹호자들의 자유의지 개념이 활동을 시작되기 전에만 타당한 개념이라면, 결정론자의 주장은 그 시작부터 완결된 행위를 전제하며 그 행위를 공간 위에 고정시킨다는 조건 하에서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의지의 개념에서도, 결정론의 주장에서도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을 활동성이나 이미 이루어진 상태만을 발견하며 이루어지는 중인 활동을 찾을 수 없다. 때문에 베르그송은 이 두 논의가 모두 자유의 문제를 건드리지도 않은 채로 끝나버린다고 이야기한다.<sup>15)</sup>

14) Ibid, p.224.

갈림길의 표상에 대한 베르그송의 검토는 결정론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가 갖는 활동성을 복원시키는 한편, 자유의지의 개념이 암시하는 모든 질이 탈색된 무차별적 활동성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기존의 자유 개념이 가지고 있던 힘의 진공 상태와 같은 자유 관념이 폐기되고 자아가 갖는 구체적 활동성이 복원된다. 우리의 의식적 삶에서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아는 상호 침투하는 질적 흐름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속이다. 베르그송의 자유는 선택의 순간에서 자아가 처한 선택 조건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도, 행위가 이루어진 후의 자아의 일반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자아의 특정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순간 드러나며 그 행위 자체가 갖는 구체적인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3.2. 행위의 조건과 과거의 존속

자아가 갖는 무차별적 활동성을 비판하고 질적 연쇄로 가득 찬 구체적 자아를 복원시킴으로써 베르그송은 자아의 자유로운 행위를 자아가 살아가는 지속과 분리할 수 없는 연속적인 흐름으로 만들어버린다. 우리의 삶의 흐름은 언제나 내용을 가진 질적인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자유는 과거의 모든 영향과 선호, 선행 조건으로부터 벗어난 무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sup>15)</sup> 그렇다면 우리는 한 사람의 의식의 흐름 속에서 미래에 일어날 행위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여기서 결정론자의 또 다른 도전이 제기된다. 그것을 정식화한 명제는 다음과 같다. <만일 어떤 행위의 모든 선행조건을 완전히 안다면, 이루어질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 이 명제에 대한 베르그송의 검토는 ‘선행조건을 완전히 안다’는 표현에 집중되어 있다. 한 사람의 의식 상태를 완전히 이해하는(assimilate)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동적인 방식과 정적인 방식으로 구별해야 할 것이다. 동적인 방식은 그 의식 상태들의 흐름을 스스로

15) Ibid, p.229.

16) Jankélévitch, Ibid, p.77.

체험하는 것에서 성립하며, 정적인 방식은 의식 자체를 특정한 관념을 통해 대체하여 지칭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7)</sup>

의식 상태를 어떤 관념에 의해 표상하는 정적인 이해의 예는 소설의 주인공에 대한 묘사에서 찾을 수 있다. 소설가는 주인공의 감정과 의식 상태를 언어적 표상을 통해 묘사하고 그의 역사를 구성해낸다. 우리는 여기서 주인공의 의식 상태가 소설의 결말 속의 행위를 이끌어내듯, 우리의 의식 상태들이 우리의 행위를 예측케 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인공의 의식 상태는 이미 소설가에 의해 선별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소설가는 소설의 결말과의 관련 속에서 소설의 내용 전체, 즉 주인공의 역사 전체를 구성하며, 그런 이유로 주인공에 대한 모든 묘사와 설정들은 결말과 관련하여 특정한 위상을 가진다. 반면 지속하는 의식의 경우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의식 전체를 구성하며, 전체를 변질시키지 않고서는 한 순간도 생략할 수 없다.<sup>18)</sup> 우리의 행위에 전혀 관련이 없는 사소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사소함은 이루어진 행위와의 관련 속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그를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는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를 이미 이루어진 행위로, 진행을 사물로 대체해야 한다. 우리는 완결된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소설 속의 인격화된 사물(人物)이 아니며, 따라서 이런 정적인 표상들에 의해 우리 행위의 선행 조건을 완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떤 행위의 선행 조건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적인 방식으로 한 사람의 의식 상태를 직접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 때 어떤 사람의 의식 상태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동일한 경험을 가진다는 것, 즉 동일한 과거와 동일한 현재를 가진다는<sup>19)</sup> 것을 의미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의식 상태들의 강도는 언제나 우리의 의식 전체를 특정한 방식으로 변화시킨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겪어 온 질적 흐름을 그대로 경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겪은 것과 동일한 변화를 거치는 것, 즉 그 사람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을

17) 앙리 베르그송, Ibid, p.233.

18) Ibid, p.247.

19) Ibid, p.235.

의미한다. 이 경우 우리는 어떤 행위의 선행 조건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예견>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람과 동일한 역사를 거쳐 동일한 감정을 경험해 왔으며 그 사람이 거쳐 온 지속 속에 자리 잡음으로써 그 사람 자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때 우리는 더 이상 관객으로서가 아니라 배우로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행위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동일성(self-identity)에 대한 베르그송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우리의 의식 상태는 끊임없는 질적 변화로서의 지속이며, 그 운동 이면에서 언어로 고정시킬 수 있는 어떤 실체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변하지 않는 자아로서의 자기동일성은 베르그송 철학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흐르는 지속 속에 자리 잡는다는 것은 그 지속이 거쳐 온 질들을 모두 경험함으로써 변화하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한 과거들은 계속해서 존속하며 우리가 경험하는 지속을 강화되고 부풀어 오르게 한다.<sup>20)</sup> 우리는 동일한 시간을 두 번 경험할 수는 없기에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지속은 결코 두 번 경험될 수 없으며, 각자가 경험한 바로 그 지속이 각자의 고유함을 드러낸다. 지속을 통해 과거를 존속시킴으로써, 우리는 각자의 고유성을 유지한다.

<동시에 동일하면서도 변화하는 존재자un être à la fois identique et changeante>는 자기모순적 개념이다. 변화하면 이미 동일하지 않을 것이요 동일한 채로 남아 있으면 아직 변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존재자가 지속하는 존재자이다. 다시 말해 지속한다는 것은 그 자체 모순적 사건이다.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으로 남아 있어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21)</sup>

따라서 어떤 행위의 선행 조건을 완전히 아는 것이란 그 사람의 지속을 동적인 방식으로 경험하는 것, 즉 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

20) Ibid, p.196.

21) Ibid, p.131, 역자 주 64).

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결국 우리의 자아 전체를 조건으로 해서 일어난다는 것, 즉 우리의 행위는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각각의 행위들과 모조리 관련되어 있다.<sup>22)</sup>

그런데 이런 형태의 자유는 우리에게 다시금 의문이 들게끔 한다. 우리의 과거 지속이 우리 자신을 구성한다면 우리의 행위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특정한 방식으로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바로 그것이다. 비록 그 지속의 요소들을 따로 떼어내서 구분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과거 전체가 우리의 단일한 미래를 낳는 것은 아닐까? 여기서 우리를 의문에 빠뜨리는 것은 필연적인 성질을 가진 인과율의 관념이다. 베르그송은 두 종류의 인과성을 구분함으로써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 3.3. 두 종류의 인과성

우리가 필연적인 인과율을 경험에 의해 파악된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A \rightarrow B$ , 즉 A가 일어날 경우 반드시 B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원인이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는 이 명제는 따라서 A라는 조건이 주어지는 한 B라는 결과가 언제나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바로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의식상태의 흐름 속에서 어떤 결과를 위해 한정된 조건을 따로 떼어낼 수가 없다. 그것은 이미 결과가 일어났음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 상태 속에서 ‘동일한 원인’을 두 번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인과성은 경험을 통해 관찰된 원인과 결과의 연결이 아니라, 원인 속에 결과가 미리 내재되어 있다는 방식의 선형적 인과성을 말한다. 우리는 여기서 두 종류의 <미리 이루어짐préformation>을 발견하며, 이 두 종류에 대한 검토가 원인 개념에 들어가 있는 애매성을 밝혀줄 것이다.

우선 우리는 이런 인과성의 예를 기하학의 명제들에서 발견한다.

22) Jankélévitch, Ibid, p.79.

기하학에서 정의로부터 따라 나오는 많은 수의 정리들은 이미 정의 속에 내재되어 있으며, 정의로부터 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의 속에 미리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대면하는 것은 모든 질이 추상된 순수 양적인 공간이며, 사실상 우리가 정의로부터 도출하는 정리들은 시간의 차이 없이 정의와 동시에 제시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리들을 도출하는 수학자에게 그것은 지속 속에서 시간을 들여야 하는 서로 다른 명제들이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 그것은 한 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인과성이 발전할수록 계기하는 현상들은 단번에 도출되며, 원인과 결과가 이루는 관계는 필연성을 띠게 된다. 인과성의 관계는 동일성의 관계에 무한히 접근한다는 의미에서 필연적 관계이다.<sup>23)</sup>

이와 같은 필연적 인과성은 기하학과 같은 순수 양적인 공간에서만 성립된다. 우리는 물리계의 현상들을 인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그것들의 독특한 질을 벗겨내고 동질적 공간 위에 늘어놓는다. 데카르트적 좌표평면이 바로 이런 동질적 공간의 예이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질도 없으며 우주의 모든 것을 현재 순간에서 동시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순간적 물리학<sup>24)</sup>을 발견한다. 그런 공간에서만 인과성은 필연적인 모습을 띠며, 필연적인 인과성을 위해서 우리는 대상들을 기하학의 세계와 같은 동질적 공간 속에서 다뤄야만 한다. 우리가 여기서 필연성을 발견하는 이유는 공간 위에서 동시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며, 현재를 현재에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을 삭제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필연성의 관념을 발견할 수 없다. 사실상 인과율이 동일률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는 이유 역시 우리가 완벽히 동질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현재에 연결시키며 지속을 완전히 삭제하지도 않기 때문이다.<sup>25)</sup> 원인이 결과로 펼쳐지기 위해서는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바로 그 사실이 동질성 간의 필연적 연결에 이질적 요소를 개입시킨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필연적 인과관계는 지속을 삭제한 공간 속에서만

23) 앙리 베르그송, Ibid, p.257.

24) Ibid, p.258.

25) Ibid, p.260.

가능하며, 따라서 지속이 그 필연성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종류의 미리 이루어짐은 우리의 정신 속에서 드러난다.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어렵풋하나마 행위의 관념을 포함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낸다. 관념과 행동 사이에는 자동적 인과관계라기 보다는 어떤 노력감, 의지의 힘이 개입하며, 우리는 결과가 달성될지 그렇지 않을지 미리 알 수 없다. 원자의 운동 원리로 사랑과 미움 등의 정신적 힘을 제시한 엠페도클레스의 주장과 같은 고대의 물할론이나, 의식뿐만 아니라 물질도 정신적 성격을 갖는 모나드로 제시한 라이프니츠에서 이런 방식의 미리 이루어짐을 발견할 수 있다.<sup>26)</sup> 이런 방식의 미리 이루어짐은 내적인 계기 속의 어떤 독특한 인과성을 표현하지만 결코 결정론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라이프니츠의 예정 조화의 가설이 모나드로부터 자체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모나드의 상호 연결에 대한 설명을 위해 신에 의해 도입된 것처럼, 이러한 종류의 인과성에 필연성을 덧붙이기 위해서는 외적인 필연성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물질 역시 지속함을, 따라서 물질들의 관계 속에서도 필연적 인과 관계를 찾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이처럼 두 가지 형태의 미리 이루어짐은 모두 우리의 자유로운 행위를 위협하지 않는다. 하나는 공간적 세계에서 필연적 관계를 발견하지만 그것이 지속 속에서는 타당하지 않음을 강조할 뿐이며, 다른 하나는 물질세계에까지 지속의 영향을 확장함으로써 신이나 외부의 원리에 의한 신비로운 방식이 아니고서는 필연성 자체를 이야기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힘의 관념과 필연적 결정의 관념 사이의 혼동이 일어나며,<sup>27)</sup> 우리는 미래와 현재의 연결 속에서 드러나는 노력감, 힘의 관념을 동시성 속에서만 드러나는 필연적 결정의 관념으로 대체해 버린다. 여전히 시간과 공간의 혼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두 개념의 혼동이 결정론을 이끌어낼 뿐이다.

26) Ibid, p.264.

27) Ibid, p.268.



#### 4. 잠재성과 자유

이상의 논의를 통해, 베르그송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결정론 역시도 사실은 시간을 공간으로 대체하는 개념의 혼동으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드러낸다. 우리는 위에서 갈림길의 표상과 행위의 선행 조건, 그리고 필연적 인과율이라는 세 가지 공간적 표상을 다루며 자유가 (1)구체적인 질을 갖는 자아의 활동성이며, (2)과거 전체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자아의 고유성을 드러내고, (3)시간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인과적 필연성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자유에 대한 이러한 언급은 다소 불완전해 보인다. 우리는 여기서 결정론만을 비판했을 뿐, 자유로운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 따라서 이것만으로는 자유가 갖는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자유를 단순한 우연적 비결정론으로 오해할 위험이 있다. (2)과거의 존속을 통해 자아의 고유성이 확보된다는 주장은 여전히 우리에게 결정의 관념을 제공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3)인과적 필연성은 단순히 (2)과거의 존속으로부터의 인과적 필연성이 달성되는 것을 교란하는 현실의 교란 요인정도로 여겨질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에 대한 비판을 검토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자유로운 행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과거의 존속과 자유로운 행위가 어떻게 화해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검토는 『시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시론』에서는 순수한 의식 상태에 한정되었던 베르그송의 지속 개념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도 추적해볼 수 있을 것이다.

##### 4.1 잠재적 과거와 자유의 사실

「가능한 것과 실재적인 것」<sup>28)</sup>에서 베르그송은 두 종류의 가능성 개념에 대해 언급한다. 하나는 단순히 어떤 실재의 비불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런 종류의 가능성은 당연히 실재가 실현되는 것의 조

28) 앙리 베르그송(이광래 역), 『사유와 운동』, 종로서적, 1981, pp.85-99.

건이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실재에 관념상으로 선재하는 것으로 실현의 조건이라기보다는 실재에 회고적으로 덧붙는 것이다.<sup>29)</sup> 예컨대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쓰기 전에 그 작품이 가능했나고 물을 때, 그 말이 햄릿이 실현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물이 없었냐는 의미라면, 두 종류의 가능성 중 전자의 의미로 햄릿은 가능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햄릿의 관념을 셰익스피어가 작성 이전에 미리 가지고 있었으며 그 관념을 따라 햄릿이 만들어졌냐는 의미로 묻는 것이라면, 이러한 두 번째 종류의 가능성은 햄릿이 실현된 후에야 회고적으로 덧붙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 햄릿은 아직 가능하지 않았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완성된 행위를 바탕으로 과거에서 그 행위의 흔적을 찾아내며, 그 흔적들을 그러모아 마치 과거에 현재 이루어진 것의 가능성이 존재했던 것처럼 생각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베르그송의 논의는 이런 회고적 가능성에 대한 비판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가능성이 이미 완결된 행위 속에서 다시 망설임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회고적인 종류의 가능성이 아닌 다른 종류의 가능성에 대해 베르그송 자신이 체계적으로 서술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들뢰즈는 위에서 제시된 첫 번째 종류의 가능성을 조금 더 정교화시켜 잠재성이라 이름 붙이고, 잠재성을 가능성과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 제시한다. 베르그송과 마찬가지로 들뢰즈는 가능성이 이미 이루어진 현실적인 것들로부터 회고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것은 이미 실현된 현재성에 덧붙여 형성되는 사이비 현재성에 불과하다. 반면 잠재성은 가능성과는 달리 현실적인 것을 가능케 하며 그것을 정초하는 토대가 되는 동시에 현실적인 것의 차이를 낳는 것으로서 제시된다. 들뢰즈는 현실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을 묶어 실재적인 것이라고 이름 붙이고, 가능한 것을 현실적인 것과 닮았지만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며 잠재적인 것과 가능한 것을 구분한다.

이 두 개념의 차이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각각의 개념이

---

29) Ibid, p.96.

현실적인 것과 관련을 맺는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능한 것이 현실적인 것과 닮아 있으며 그대로 실현되는 반면, 잠재적인 것을 구체화한 현실적인 것은 잠재적인 것과 유사하지 않다.<sup>30)</sup> 예컨대 어떤 세계적인 축구 선수를 떠올려보자. 우리가 그 축구 선수의 과거를 회고함으로써 발견하는 것은 현재 그 선수의 축구 실력과 닮은 어떤 가능성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축구 선수의 성장 과정에서 발현되는 것은 그 가능성의 실현이 아니다. 가능성만으로 우리는 그 축구 선수가 어떻게 성장할지를 알 수 없다. 축구 선수의 성장은 자기 자신과 달라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잠재성을 현실화 하는 과정, 즉 차이를 창조하는 과정이다. 축구 선수는 그 이전의 자기 자신과 달라짐으로써만 잠재성을 현실화한다. 잠재성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되는 것이며, 현실화 과정 속에서 닮거나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고 창조한다는 점에서 가능성과 차이를 보인다.<sup>31)</sup>

들뢰즈는 베르그송의 철학에 잠재성의 개념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비수적(非數的) 다양성인 지속을 잠재적인 것으로 규정한다.<sup>32)</sup> 이런 방식의 이해는 잠재적 지속으로서의 과거의 존속이 그것을 현실화하는 자유로운 행위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과거는 현실적 대상으로 존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의식을 통해 잠재적으로 존속한다. 우리의 의식의 지속은 잠재적 형태의 과거의 존속이며, 이것은 우리의 행위를 가능케 하는 초월론적 토대이다. 그러나 순수 이질성으로서의 지속은 결코 그 자체로 드러나지 않는다. 잠재성은 현실화를 통해서만 드러난다. 들뢰즈는 여기서 지속이 그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결코 분할될 수 없다는 『시론』의 구절<sup>33)</sup>을 잠재성이 분화되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본성상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탁월하게 해석한다.<sup>34)</sup> 우리의 지속하는 의식은 나

30) 질 들뢰즈(김재인 역), 『베르그송주의』, 문학과지성사, 1996, p.135.

31) Ibid, p.136.

32) Ibid, p.55.

33) 앙리 베르그송(최화 역),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시론』, 아카넷, 2001, p.245.

34) 질 들뢰즈, Ibid, p.55, 136.

타나기 위해서 본성상 차이나는 행위로 끊임없이 분절된다. 행위는 잠재적인 것으로서의 지속하는 의식을 구체화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우리의 고유한 의식이 드러나는 것은 언제나 본성상 차이나는 행위를 통해서이다. 따라서 우리의 의식 전체가 반영된 행위, 즉 자유로운 행위는 바로 본성상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의 경험을 가능케 하는 토대인 지속이 어떻게 동시에 자유로운 행위를 가능케 하는지가 드러난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의식인 지속은 잠재적 과거의 형태로 존속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의식의 흐름은 스스로 분화되며 우리의 고유한 의식으로 부터 차이 나는 행위를 창조해 낸다. 베르그송은 이런 창조적 행위를 자유로운 행위로 규정한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의식이, 지속이, 잠재성이 현실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창조하고 있으며, 따라서 시간이 흐르는 한 우리에게 자유롭다는 것은 하나의 사실이다.

#### 4.2. 잠재성의 분화와 자유의 정도차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베르그송의 자유 개념이 시간의 흐름을 통해 잠재성이 현실화되는 과정임이 밝혀졌다. 우리는 여기서 잠재성의 현실화 과정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자유로운 행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잠재성 자체도, 구체화된 현실성 자체도 아닌 잠재성을 현실화하는 바로 그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베르그송은 『창조적 진화』에서 생명의 지속을 폭죽에, 개별 생명체를 떨어지는 불꽃에 비유함으로써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sup>35)</sup> 즉, 끊임없는 변화와 운동으로서의 의식이 폭죽의 상승운동이라면 그것의 현실화는 그 운동의 중지, 불꽃의 잔해들을 통해 발생한다.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물질적

35) 앙리 베르그송(황수영 역), 『창조적 진화』, 아카넷, 2005, p.389.

질서로의 낙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지속은 분화를 통해 물질적 질서로 변화하며 물질적 질서로 변화됨을 통해서만 드러난다. 베르그송은 『창조적 진화』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통해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의식은 본질적으로 자유롭다. 그것은 자유 그 자체이다. 그러나 의식은 물질 위에 놓여 그것에 적응하지 않고서는 물질을 통과할 수 없다.<sup>36)</sup>

의식을 지속으로, 물질을 공간으로 번역한다면 베르그송은 여기서 지속이 현실화되기 위해 공간의 질서와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베르그송은 『시론』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자유가 정도차를 가지고 있다는 베르그송의 주장은 우리의 권리 상 자유로운 의식이 실제로 드러나기 위해서 공간의 질서와 마주해야만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는 언어의 응고를 통해서가 아니라면 우리 자신을 직접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관념들을 마치 우리 밖에 있는 것처럼 부동성 속에서 대면하면서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한다.<sup>37)</sup> 이렇게 동질적 공간에 투사된 자아의 그림자는 사회와 언어생활을 통해 점차 우리의 근본적 자아를 대신하며, 자아의 표면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표층적 자아를 형성한다. 이 경우 우리는 단지 의식이 있는 자동기계<sup>38)</sup>에 불과하며, 우리의 실제 행위가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큰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물질의 질서로 추락한다. 그러나 그 때조차 우리는 지속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수동성까지 추락하지는 않는다.<sup>39)</sup> 반면, 그러한 표층자아를 떠나 우리의 근원적 자아에 다다르기란 매우 큰 노력이 필요하며, 때문에

36) Ibid, p.401.

37) 앙리 베르그송(최화 역),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시론』, 아카넷, 2001, p.172.

38) Ibid, p.213.

39) 앙리 베르그송(황수영 역), 『창조적 진화』, 아카넷, 2005, p.303.

베르그송은 자유를 하나의 사실로 제시하면서도 동시에 자유에는 정도차가 있으며<sup>40)</sup> 진정 자유로운 행위가 드물다고 이야기한다.<sup>41)</sup>

우리는 여기서 다시 정도차를, 시간과 공간의 뒤섞임을 발견한다. 계속해서 시간과 공간의 혼동을 비판하고 그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 왔던 베르그송의 논의를 떠올려본다면, 자유의 논의에서 다시 지속의 정도차를 인정하는 것이 매우 의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외견상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베르그송의 비판한 시간과 공간의 혼동과 여기서 드러나는 자유의 정도차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 앞서 살펴본 강도의 정도차가 동시성 위에서 강도적인 것을 연장적인 것으로 번역하면서 이루어진 시간의 공간화라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공간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공간의 시간화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의 공간화는 시간의 흐름을 멈춰진 것으로, 하나의 체계로 형성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반면 공간의 시간화는 이루어진 행위를 결코 완결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만들어진 체계를 시간의 흐름 속으로 끊임없이 용해한다. 우리는 왜 여기서 공간보다 시간을 우위에 두는가? 그것은 시간이 끊임없는 재 분화를 통해 체계를 형성시키기 때문이다. 공간 속에서 시간은 배제되지만, 시간은 공간을 끌어안고 흐른다. 시간은 체계를 만들되 그것을 단번에 완성시키지 않는 체계의 조건이다.<sup>42)</sup>

시간에 대한 이해는 자유에 대한 이해와도 직결된다. 자유는 이루어진 행위들이 아니다. 우리 표면의 행위를 우리 자신의 정체성으로 파악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변화 없이 공간 속에 단단히 고정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는 우리 자신의 행위를 만들되 그것이 단번에 결정되도록 하지 않는 우리 의식의 지속하는 흐름을 가리킨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은 그 잠재적 지속을 현실적인 것으로 분화하는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이 행위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나게 하는 데서

40) 앙리 베르그송(최화 역),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시론』, 아카넷, 2001, p.210.

41) Ibid, p.212.

42) 김재희, 「베르그송의 무의식 개념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p.216.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질적 흐름으로서 기억을 통해 우리 자신의 지속 속에 잠재적으로 존속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의식을 재 분화하며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간다. 이러한 의식의 분화 운동이 둔화되는 순간 자동성은 우리의 자유를 침식한다. 그러나 우리는 본성상 자유롭다. 의식이 지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무의식적으로 의식의 분화 운동을 계속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의식의 흐름 속에서 우리 자신의 고유한 행위를 창조하려 노력할수록, 우리의 행위는 더 자유로워진다.

## 5. 나오며－자유 의 의미

『시론』에서 베르그송은 의식상태의 질서인 시간과, 외부 사물의 질서인 공간의 혼동을 지적하고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목표로 탐구를 진행했다. 측정할 수 있는 강도의 개념과 동질적 시간의 관념을 시간과 공간의 혼동이라고 비판한 뒤 베르그송은 자유에 대한 그간의 탐구들 역시 시간을 공간화하고 지속을 연장성으로 혼동하는 데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었다.

베르그송은 자유의 문제가 허구적인 개념에 기초한 거짓 문제임을 드러내고 자유 개념의 의미를 전환한다. 자유의지의 옹호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자유는 어떤 <무>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자유의지의 옹호자들은 이미 이루어진 행위들을 선택지로 두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행위들 중 어느 쪽으로도 단번에 기울지 않는 <무>의 상태를 자유로 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두 대안 사이의 기계적 진동은 회고의 결과이며, 자유는 가능한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자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자아의 정체성은 자아의 지속하는 의식 속에 존속하는 과거를 통해 드러난다. 우리의 과거는 아주 사소한 사건들까지 전부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지속하는 과거를 전부 경험함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된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는 과거로부터 인과적으로 도출된 것이

아니다. 필연적 인과성은 우리 자신의 의식을 지속 속에서 빼내고 그것을 공간화시키는 한에서만 적용 가능한 성질이다. 지속하는 과거는 잠재적 형태로 존속하고 있으며, 본성상 차이나는 행위로 분화됨으로써만 현실화된다.

잠재성의 현실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찾던 자유로운 행위이며, 우리는 자유로운 행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창조한다. 우리의 의식은 물질을 통해서만 현실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을 현실화하는 잠재적인 층위들의 정도차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유의 발현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잠재적 자유의 발현에는 우리 자신 속으로 빠져드는 노력이 필요하며, 시간이 필요하다.

자유에 대한 이 모든 논의는 지속하는 의식 상태로부터 끌어낸 것으로, 사실은 진정한 시간, 즉 지속의 성질이다.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언제나 구체적 질을 동반하며, 모든 것을 잠재적 과거로 존속시키는 동시에 흘러감을 통해 현실화한다. 시간이 현실성으로 분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시론』에서 의식영역에 국한시켰던 순수 지속을 이제는 공간과의 관련성 속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시론』에서 출발한 자유의 문제가 지속의 존재론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베르그송의 자유론은 시간과 공간이 조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그럼에도 이 둘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어 준다.<sup>43)</sup> 우리는 『시론』에서도 외부 사물의 지속에 대한 베르그송의 고민의 흔적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고민은 『물질과 기억』과 『창조적 진화』를 거치며 창조적 우주의 생동하는 존재론, 즉 지속하는 시간의 존재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43) 송영진, 「Bergson에 있어서 自由의 意味」, 『전북대학교 논문집』 20호, 인문사회과학편, 1978, p.13.



## 참고문헌

### 단행본

- 앙리 베르그송(최화 역),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시론』, 아카넷, 2001.
- Bergson, Henri, *Time and Free Will(An Essay on the Immediate Data of Consciousness)* (tr. by Pogson, F. L.), Dover Publications, 2001.
- 앙리 베르그송(이광래 역), 『사유와 운동』, 종로서적, 1981.
- 앙리 베르그송(황수영 역), 『창조적 진화』, 아카넷, 2005.
- 질 들뢰즈(김재인 역), 『베르그송주의』, 문학과지성사, 1996.
- Jankélévitch, Vladimir, *Henri Bergson*, PUF: Paris, 1959.

### 관련논문

- 질 들뢰즈(박정태 역), 「베르그송, 1859~1941」,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이학사, 2007, pp. 278-307.
- 김재희, 「베르그송의 무의식 개념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송영진, 「Bergson에 있어서 自由의 意味」, 『전북대학교 논문집』 20호, 인문사회과학편, 1978, pp. 49-61.
- 이선희, 「베르그송(Bergson)의 의식과 지속에 관하여 :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시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